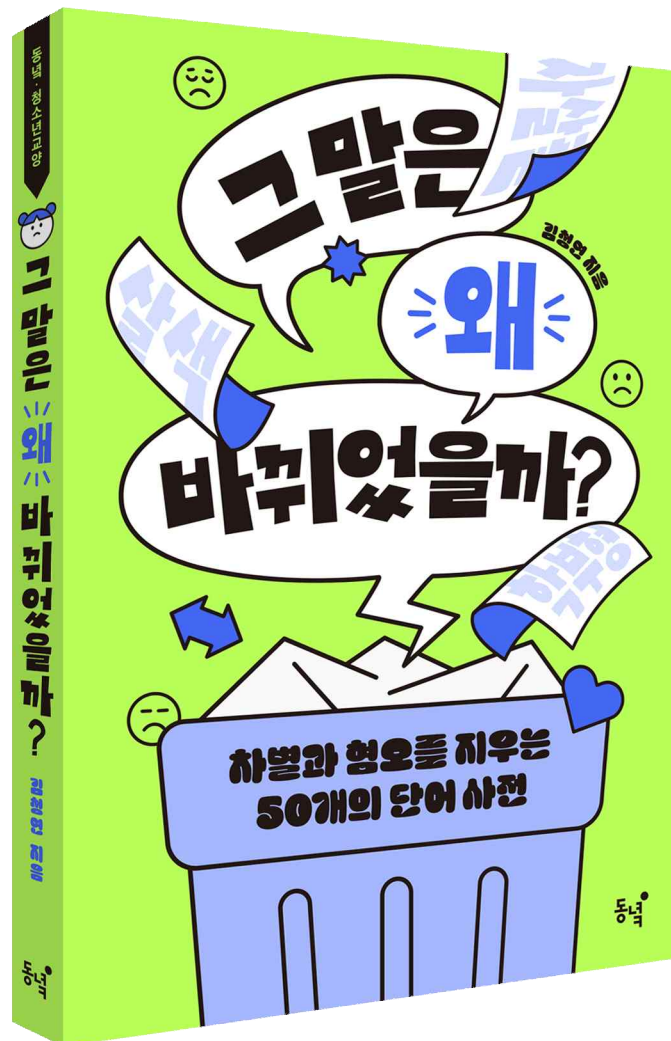


책 제목	그 말은 왜 바뀌었을까?	지은이	김청연	출판사	동녘
학교		학년/반		이름	

그 말은 왜 바뀌었을까?

차별과 혐오를 지우는 50개의 단어 사전



#청소년교양 #언어감수성 #언어로세상읽기 #차별과혐오 #언어의역사

[책소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쏟아 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차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란 쉽지 않지요. 언어는 말하는 이의 의도뿐만 아니라, 듣는 이의 감정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 책은 차별과 편견을 담은 단어의 뿌리와 변화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또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 주며, 교실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힌트를 건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라는 냉소 대신 ‘이런 부분도 배려해야지’라는 예민함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언어 감수성을 잘 가꾸어 나간다면, 비로소 우리 사회도 존중과 배려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권희린, 《이 욕이 아무렇지 않다고?》 저자, 고등학교 사서교사

말은 힘이 셉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혐오와 차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이 책은 그런 고민의 결과가 담긴 표현들을 소개합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쓰였지만 지금은 바뀌었거나, 앞으로 바뀌어야 할 표현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 담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뀐 말들이 아직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혐오와 차별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책을 마중물 삼아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존중의 언어로 함께 바꿔 봅시다.

-김상용, 고등학교 국어교사

학부형, 병어리장갑, 유모차...

사라진 말, 바뀐 말, 바뀌어야 할 말, 차별의 언어가 존중의 언어가 되기까지!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자, 사회 변화를 이끄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과 혐오의 의미가 스며 있는 말들은 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불균형한 구조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바로잡으려는 변화의 노력 또한 함께 보여 준다.

《그 말은 왜 바뀌었을까?》는 여기서 출발해, 일상 속에서 사용되어온 말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왜 바뀌어야 하는지 탐구한다.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 ‘자살골’이 ‘자책골’로 바뀌게 된 과정 등 이미 바뀐 단어들의 배경과 인식의 변화를 살피는 한편, 여전히 논의 중이거나 앞으로 바뀌어야 할 표현들까지 함께 다룬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해온 말의 역사와 맥락을 되짚으며 말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의 가치를 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말의 변화를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차별과 편견을 인식하고, 존중과 포용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브레인스토밍 하기]

1.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인가요?

- ☐ 궁금하다
- ☐ 어떤 말들이 생각난다
- ☐ 불편하다
- ☐ 지겹다
- ☐ 잘 모르겠다

2.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 같나요?

- ☐ 대한민국 역사
- ☐ 분리수거 방법
- ☐ 말과 우리 사회
- ☐ 문제 풀이
- ☐ 잘 모르겠다

3. 표지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나요?

- ☐ 타자 연습
- ☐ 단어 프린트
- ☐ 컨페티 날리기
- ☐ 단어 맞추기 게임
- ☐ 혐오표현 버리기

4. 이 책은 어떤 책일 것 같나요?

- ☐ 훈내는 책
- ☐ 설명해 주는 책
- ☐ 같이 생각해 보는 책
- ☐ 내 편이 되어 주는 책
- ☐ 잘 모르겠다

5. 이 책을 읽기 전, 내 마음은?

- ☐ 이야기 나누고 싶다
- ☐ 괜히 긴장된다
- ☐ 재미있을 것 같다
- ☐ 별 기대 없다
- ☐ 궁금하다

[독서 전] 책 표지 보며 내용 예측하기

1. 글자가 적힌 종이가 하늘에 흩날리고, 종이가 쓰레기통에 가득 쌓여 있어요. 이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 ② 누가 쓰레기통을 었었다.
- ③ 어떤 표현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 ④ 글자로 대화 중이다.

2. 부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이 책의 부제는 ‘차별과 혐오를 지우는 50개의 단어 사전’이에요. 어떤 표현이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이거나 편견이 담긴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찾아보아요.

다음 표현들을 계속 써도 되는 말, 바뀌면 좋을 말로 분리수거해 보세요

- 문제집
- 살색
- 자살골
- 노래
- 불구자
- 구름
- 학습부진아

계속 써도 되는 말

바뀌면 좋을 말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경력단절여성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경제 활동이 끊겼다가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18~20쪽]

‘경력단절여성’이란 단어는 사전엔 없지만, 우리나라 법령에도 적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널리 쓰여 왔어. 이 단어에서 ‘단절’은 한자 ‘끊을 단(斷)’ ‘끊을 절(絶)’로 이루어져 있어. ‘경력단절’은 여기에서 출발해 ‘근무 활동의 흐름이 끊긴 상황’을 말하지.

‘경력단절여성’은 보통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가족 구성원의 돌봄, 배우자가 사는 지역으로의 이사 등 다양한 사유로 직장 생활을 중단하게 된 여성을 뜻해. 대화 속 이모처럼 말이야. 단어의 의미만 본다면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않고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무수한 ‘노동’을 끊임없이 수행해 왔어. 직함, 명함이 없었을 뿐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호칭에 ‘단절’이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이들의 노동은 가치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어.

2025년 말, 국회에서도 ‘경력단절’이 내포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사회 인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이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었어. 바뀐 표현에는 ‘단절’ 대신 ‘보유(保有)’가 들어감으로써, ‘(물건이나 능력 등을)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라는 뜻이 담겼어. ‘단절’이 과거의 상태가 끊어짐으로 인한 결여·공백 등에 초점을 둔다면, ‘보유’는 누군가가 가진 자원·능력·잠재력 등에 주목하게 해. 당사자의 사회 경력뿐 아니라 가정 내 노동까지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느껴지지.

1.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느낌 혹은 단어를 적어 보세요.

() () ()

2. 본문을 읽고,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이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말로 바뀐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결혼한 여성만 다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집에서 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 ③ 가정에서의 돌봄과 노동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 ④ ‘경력보유여성’이 더 발음하기 쉬워서이다.

3. 다음 중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 ① 가정에서의 돌봄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이다.
- ② ‘경력단절’은 당사자가 직장을 쉬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 ③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말은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④ ‘경력단절여성’은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경력이 모두 사라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4. 다음 두 문장을 읽고, 두 표현이 주는 느낌의 차이를 써 보세요.

“A는 경력단절여성입니다.”

“B는 경력보유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도 함께 적어보세요.

노약자석

대중교통에서 고령자 등을 우대하자는 뜻에서 만든 전용석.

[34~36쪽]

노약자석은 1980년 8월, 서울 지하철 내 ‘노약자 지정석’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등장했어. 약 4개월 후 서울 시내버스에는 ‘경로석’이라는 명칭의 좌석도 생겼어. ‘공경할 경(敬)’ ‘늙을 로(老)’ ‘자리 석(席)’. 즉, 경로석은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련한 자리’라는 뜻으로 65세 이상 어른들을 우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 노약자 지정석과 경로석은 둘 다 일상에서 ‘노약자석’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어 왔어. 두 단어 모두 한자 ‘늙을 로’가 붙어 있어 ‘노인을 위한 자리’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전해져.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고령자뿐 아니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의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 해당 법 제2조 1호에서는 ‘교통약자’를 고령자·장애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으로 명시해 복지의 주체를 폭넓게 확대했어. 이 법의 시행 이후, 지자체와 당시 서울메트로 등은 법적 용어에 맞춰 명칭을 ‘교통약자석’으로 점차 변경했어.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 머릿속에 ‘노약자석’이라는 명칭이 워낙 깊게 뿌리박혀 있어서 이는 여전히 ‘노인 전용석’처럼 여겨지기도 해. 용어로 인한 오해 탓에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이 이를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1. 다음 중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 ☐ 65세 이상 고령자
- ☐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 임산부
- ☐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 다리를 다친 대학생

2. 본문을 읽고,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 ① ‘노약자석’은 원래 노인을 위한 자리라는 의미가 강했다.
- ② ‘교통약자석’에 이제 노인은 앉을 수 없다.
- ③ 용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노인 전용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 ④ ‘교통약자석’은 이동이 불편한 다양한 사람을 위한 자리다.

3. 다음 중 ‘교통약자석’에 누가 먼저 앉으면 좋을지 자유롭게 그 순서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써 봅시다.

임산부 | _____

가방이 무거운 대학생 | _____

다리를 다친 청소년 | _____

4. 만약 ‘노약자석’ 대신 ‘교통약자석’이라는 이름이 정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반팔

팔꿈치 위나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짧은 소매.
또는 그런 옷.

[58~60쪽]

워낙 오랜 시간 써 왔고,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이 단어에는 사실 논리적 모순이 숨어 있어. 반팔은 ‘옷의 소매가 짧은 상태’로 통하지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팔의 절반’을 말하고 있잖아. 뭔가 이상하지? ‘소매’가 팔 길이의 절반인 것이지, ‘팔’ 자체가 절반인 건 아닌데 말이야. 소매라는 단어 대신 그 소매가 덮고 있는 신체 부위인 ‘팔’을 빌려 와서 표현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생긴 걸 거야. 즉, ‘팔을 반만 덮는 옷’이라는 긴 설명이 ‘반팔’이라는 단어로 축약되며 생긴 오류인 거겠지.

이러한 축약 방식은 단순한 논리적 오류를 넘어, 누군가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어. ‘반팔’은 ‘특정 길이의 팔’만을 정상성(기준)으로 전제하기 때문이야. 이는 팔의 길이가 다수와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의 신체를 낮잡아 부르는 것처럼 다가갈 수 있어. 이 표현은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이기 때문에 대체 표현이 필요하다는 말이 꾸준히 나왔어.

‘반소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반팔의 동의어로 등록된 표현이야. 반팔이 신체 부위를 지칭한다면, 반소매는 옷의 길이, 즉 형태를 설명해.

1. 다음 중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 ① '반팔'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표현이다.
- ② '반팔'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팔의 절반'을 말한다.
- ③ '반팔'은 논리적으로도 완벽한 표현이다.
- ④ '반소매'는 옷의 형태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2. 다음 문장을 더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 써 보세요.

· 오늘은 더워서 반팔을 입었다.

→ _____

· 반팔 티셔츠를 하나 샀다.

→ _____

3. 글쓴이가 '반소매'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발음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 ② 신체가 아니라 옷의 형태를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 ③ 외래어가 아닌 순우리말이기 때문이다.
- ④ 최신 유행하는 밈이기 때문이다.

4. 다음 표현 중 '반팔'과 같은 방식, 즉 신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말을 골라 보세요. 그리고 그 표현의 대체 표현을 찾아 보세요.

- ☐ 긴팔
- ☐ 긴바지
- ☐ 반바지
- ☐ 민소매

고른 말의 대체 표현

5. 본문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모두 골라 보세요.

- ☐ '반팔'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팔의 절반'을 뜻한다.
- ☐ '반팔'은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 ☐ '반팔'이라는 표현은 '특정 길이의 팔'만을 정상성(기준)으로 전제한다.
- ☐ '반소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반팔'의 동의어로 등록되어 있다.
- ☐ 기타 : _____

살색

인간의 피부색.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
동양인의 연한 주황색의 피부색을 뜻하는 말.

[90~92쪽]

아마 여러분도 ‘살색 크레파스’ ‘살색 스타킹’ ‘살색 밴드’ 등 제품의 색상 명칭에서 ‘살색’이라는 표현을 봤을지도 몰라. 지금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게 무슨 색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현재의 국가기술표준원은 1964년 당시, 한국 산업규격을 정하면서 일본의 공업규격에서 쓰는 색깔 명칭을 글자 그대로 번역해 동양인의 피부색과 유사한 특정 색깔을 ‘살색’이라 이름 붙였어. 크레파스, 물감 업체 등은 이에 따라 특정 색에 ‘살색’이라는 표시를 했지. 워낙 오래, 아무렇지 않게 쓰여 왔기에 당시 사람들은 이 명칭에 대해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았어.

사실 ‘살색’은 말 그대로 ‘사람의 피부색’을 뜻하는 가치중립적인 단어야. 사전적 정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실제 쓰일 때는 특정 집단의 피부색만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표현이 되지. 때는 2001년, 우리나라 한 목사와 이주 배경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크레파스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진정을 내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돼. 우리가 쓰는 ‘살색’이라는 명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부색 중 하나만을 지칭할 뿐이고, 특정 인종의 관점만 반영된 배타적인 표현임을 그제야 안 거지.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산업규격(KS)에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한 것은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국가 표준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권고했어. 이에 따라 2002년 11월부터 ‘연주황(軟朱黃)’ 또는 ‘연한 노랑 분홍’이 살색의 대체 표현으로 등장했어. 2004년에는 초등학교들이 ‘연주황’이라는 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이 일어났어. 학생들은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황’을 사용하는 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를 ‘살구색’으로 바꿔 달라고 했어.

‘살색’이 특정 인종의 피부색을 인간의 표준 ‘살’색으로 정의했다면, ‘살구색’은 실제 존재하는 과일 색깔에서 가져왔기에 색깔만을 드러내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표현이야.

1. 본문을 읽고,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특정 피부색만을 사람의 대표 색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살구색이 더 예쁜 이름이기 때문이다.
- ③ 살색이라는 단어가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 크레파스 회사에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2. 다음 중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 ① 세상 사람들의 피부색은 어차피 ‘살’색이기 때문에 ‘살색’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 ② ‘살구색’은 실제 과일의 색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③ ‘살색’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이름이 바뀌었다.
- ④ ‘살색’은 원래 특정 피부색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다.

3. 나의 손등이나 팔 안쪽의 피부색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고 O, X로 표시해 보세요.

() 옆자리 친구와 내 피부색이 똑같다.

() 모두의 '살'색은 다르기 때문에 특정 피부색을 '살색'이라는 말로 부를 수 없다.

4. 색깔 이름을 새로 붙여 봅시다. '살구색'처럼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자연에서 딴 이름을 딴 색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칠판 : _____ 색

책상 : _____ 색

나의 티셔츠 : _____ 색

나의 신발 : _____ 색

5. 예전 학용품에는 이 색이 '살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색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나요? 그 이유도 함께 말해 보세요.



내가 붙인 새 이름: _____

이름 붙인 이유

애완동물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고, 장난감처럼 여기며
데리고 놀기도 하는 동물.

[106~108쪽]

최근 몇 년 사이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들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동물을 주체적인 생명이 아닌 인간의 유희를 위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싹텄어.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핼썽 쇼윈도에 진열되고, 돈벌이 수단이 되는 동물들의 삶이 조명을 받으면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구호도 큰 공감을 얻기 시작했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야. 떠오르는 새로운 대체 표현은 ‘반려동물’이야. ‘짝 반(伴)’ ‘벗 려(侶)’라는 한자어로 된 ‘반려’는 본래 짝이 되는 동무를 뜻하는 말이야. ‘동물’과 함께 붙었을 때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 대우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함께 의지하고 가까이 둔다는 의미가 커. 즉, ‘반려동물’은 동물과 인간이 동등한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한 표현이야. 용어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동물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 하던 핼썽 대신, 인간 삶의 동반자로 존중하며 가족을 찾아 준다는 의미를 담은 반려동물 분양소나 입양 센터 등도 등장했어. 명칭과 시설 등의 변화는 동물을 소유와 유희가 아닌, 공존과 책임의 관점으로 바라 봐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음을 의미해.

1. 본문을 읽고,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동물을 더 비싸게 판매하기 위해서
- ② 동물을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기 위해서
- ③ 동물을 모두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 ④ 외국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따라 하기 위해서

2. 다음 중 ‘반려동물’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와 가까운 것을 모두 골라 보세요.

- ☐ 가족처럼 함께 ‘반려’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 ☐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키우는 장난감이다.
- ☐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 ☐ 필요 없어지면 쉽게 버려도 된다.

3. 다음 문장을 읽고, 알맞은 단어와 문장을 짝지어 보세요.

- | | | |
|------|---|-----------------------|
| 애완동물 | • | •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본다. |
| 반려동물 | • | • 동물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

4. 다음 두 기사 제목을 읽고, 각 기사에서 동물을 어떤 관점이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지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애완동물 판매 펫숍, 신종 사업으로 우뚝>

<반려동물도 엄연한 생명,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5. 다음 문장을 새로운 대체표현을 사용하여 써 보세요.

“애완동물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

자살골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자기 팀의 골대에
공을 잘못 넣는 일을 ‘자살’에 빗댄 말.

[138~140쪽]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스포츠 중계나 기사에서 이 용어를 흔히 사용했지만, 요즘엔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로 대체 표현을 쓰는 일이 많아졌어.

대체 표현을 고민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콜롬비아 수비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는 미국과의 경기에서 공을 걷어내려다 ‘자살골’을 넣는 실수를 범했어. 그런데 콜롬비아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 귀국한 에스코바르가 한 술집에서 괴한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게 된 거야.

이 사건은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큰 경종을 울렸어. 실수로 자기 팀 골문에 공을 넣은 행위를 ‘자살’에 빗대 표현하는 방식이, 선수 개인에게 극단적인 죄책감을 안기고 과도한 비난과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 단어의 폭력적인 어감이 실수를 저지른 선수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을 정당화하고, 이것이 실제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심리적 토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고.

사건 이후 사람들은 ‘자책골’이라는 대체표현을 쓰게 됐어. ‘스스로 죽이는 골’이라는 의미의 ‘자살골’이란 용어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느낌이 강해 선수에게 과도한 비난을 주는 느낌이라면, ‘자책골’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실수나 과실에 초점을 뒀. 실수 역시 경기의 일부일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이 표현에는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어.

1. 본문을 읽고, ‘자살골’ 대신 ‘자책골’이 쓰이게 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축구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 ② ‘자책골’이 발음하기 더 쉬워서이다.
- ③ 외국에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④ 선수의 실수를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 다음 기사 제목을 읽고,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보세요.

기존 표현	새로운 표현
〈한국 대표팀, 자살골로 아쉬운 패배〉	〈한국 대표팀, 자책골로 아쉬운 패배〉

- ☐ 기존 표현이 더 적절하다.
- ☐ 새로운 표현이 더 적절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3. 다음 중 '자살골'과 '자책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두 표현은 느낌이 완전히 같다.
- ② '자살골'은 극단적이고 비난의 느낌이 강하다.
- ③ '자책골'은 일부러 넣은 골을 뜻한다.
- ④ '자살골'은 긍정적인 표현이다.

4. 경기 중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책골'을 넣은 실수를 한 선수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치정 사건

짝사랑, 이별 통보 등 사랑에 얽힌
온갖 어지러운 정으로 생기는 감정적 갈등이나 사건.

[166~168쪽]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불륜이나 짝사랑, 이별 통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싸움이나 폭력, 살인 등의 범죄를 두고 관습적으로 ‘치정 사건’ 또는 ‘치정 범죄’라고 칭해 왔어.

폭행과 스토킹, 살인 같은 심각한 범죄에 ‘치정’이란 표현이 붙자 사건의 무게는 가벼워졌어. “누가 사랑에 빠져 일을 쳤군!”처럼 사건의 동기로 사랑, 질투 등의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여기며 사건을 가벼운 소재로 소비하는 이들도 많았어. 그리고 이는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영향을 줬어. 나아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도 형성됐어. 사람들 사이에선 강력 범죄 사건을 ‘치정’이라는 틀에 가두면 범죄가 범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싹텄어.

그래서 등장한 말이 바로 ‘교제 폭력’이야. ‘교제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와 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말로, 정부 기관 등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야. ‘치정’이라는 단어가 범행의 동기를 가해자의 사랑, 질투 등 감정적인 문제로 포장하기 쉬웠다면, ‘교제 폭력’은 특정 사건이 엄연히 범죄임을 명확히 드러내.

1. 본문을 읽고, ‘치정 사건’ 대신 ‘교제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사랑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 ②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
- ③ 범죄를 감정 문제처럼 보지 않고, 폭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 ④ 경찰이 사용하기 편해서

2. 다음 기사 제목을 읽고, 어떤 제목이 사건의 성격을 더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지 골라 보세요.

기존 표현	새로운 표현
〈사랑에서 시작된 치정 사건〉	〈교제 폭력으로 드러난 데이트 범죄〉

- ☐ 기존 표현
- ☐ 새로운 표현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3. 다음 중 '치정 사건'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두 골라 보세요.

- ☐ 범죄를 사랑이나 질투 같은 감정 문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 ☐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 ☐ 폭력과 범죄의 심각성을 흐릴 수 있다.
- ☐ 사건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4.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이라는 용어는 폭행이나 스토킹, 살인 같은 중범죄를 사적인 감정 문제로 가볍게 여기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그 말은 왜 바뀌었을까?> 독서지도안 정답지

[책 속으로]

<경력단절여성>

1. (예시) 끊긴 느낌, 육아, 백수
2. ③
3. ④
4. (예시) 경력이 끊겨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느낌,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열린 느낌, (자유 답변)

<노약자석>

1. 65세 이상 고령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다리를 다친 대학생
2. ②
3. (자유 답변)
4. (예시) 이동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앉을 수 있고, 노인들만 앉을 수 있다는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

<반팔>

1. ③
2. (예시) 오늘은 더워서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다, 반소매 티셔츠를 하나 샀다.
3. ②
4. 긴팔, 긴소매
5. (자유 답변)

<살색>

1. ①
2. ①
3. (자유 답변), O
4. (예시) 사과색, 초콜릿색, 봄날의새싹색, 먹구름색
5. (예시) 연분홍색, 색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애완동물>

1. ②
2. 가족처럼 함께 '반려'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3. X
4. (예시) 동물을 도구로 보는 느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느낌
5. (예시)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자살골>

1. ④
2. (예시) 새로운 표현이 더 적절하다, '자살골'은 너무 폭력적인 느낌이다

3. ②

4. (예시) 실수도 경기의 일부예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치정 사건>

1. ③

2. (예시) 새로운 표현, 기존 표현은 개인적인 사연 같고, 새로운 표현은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된다.

3. 범죄를 사랑이나 질투 같은 감정 문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폭력과 범죄의 심각성을 흐릴 수 있다.

4. 치정 사건, 교제폭력